



기아자동차가 20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상하이 모터쇼의 미디어데이(언론공개일) 행사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한 K4를 최초로 공개했다. /상하이=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대륙 유혹

상하이 모터쇼 미디어데이 행사...K4·뉴 K5 최초 공개
K9 현지 출시 중 대형차 시장 공략...K5는 하반기 선보

상하이=임동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20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상하이 모터쇼의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신형 K5와 함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한 K4를 최초로 선보였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프리미엄 대형 세단 K9을 중국 시장에 공식 출시하고 대형차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인 동평위에다가의 소남영 총경리(부사장)는 “신형 K5는 기존의 스포티한 감성에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라며 “K9은 기아차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세단으로 중국 대형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동평위에다가의 올해 중국 내 판매 목표 74만5000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아차는 하반기에 중국형 신형 K5를 출시해

중국 중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아차는 이날 K9 1호차 주인공으로 중국 디지털미디어업체 포커스미디어의 장난춘 대표를 선정하고 차량 전달식을 했다.

K9은 기아차의 중국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프리미엄 대형 세단이다. 아라운드뷰 모니터, 스마트 트렁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췄으며 앞차와의 간격을 감지해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 경고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기아차는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2475m의 공간을 마련하고 K9과 신형 K5를 비롯 K시리즈, KX3, K5 하이브리드, 쏘울 전기차 등 27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기아차 전시장은 K시리즈 및 K시리즈 터보 존과 파워트레인이나 기아차를 모티브로 제작한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는 구역 등으로 이뤄졌다. /exian@kwangju.co.kr



수입차 부품값 뱅붕기

‘스스로 정비족’ 늘다

육선, 수입차 부품 판매 전년비 32% ↑
에어컨 필터·오일 필터·전기장지류 순
20대 자가 정비 비율 150% 늘어 최대
보험업계, 수입차 공임 적정성 평가 촉구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싼 부품 값에 부풀린 공임까지 쟁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수입차 부품을 구입해 정비에 도전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일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간 수입차 부품 판매량은 작년 4월보다 32% 늘

었다. 옥션은 지난해 4월 이후 ‘수입차 부품’을 전체 ‘자동차 부품’에서 분리해 별도 항목(카테고리)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매자 연령별 증가율에서는 20대가 150%로 1위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상 20대의 수입차 구매량은 30대의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지만, ‘자가 정비’ 열기는 가장 뜨거운 셈이다. 이밖에 수입차의 핵심 수요층인 50대의 부품 구매도 약 1년 사이 79%나 늘었고, 30대와 40대에서도 각각 28%, 19%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에어컨 필터·오일 필터 등 필터류가 가장 많이 팔렸다. 엔진부품·앞유리 청소용품·전기장지류 등이 뒤를 이었다. 에어컨 필터의 경우 비교적 작업이 쉬운 부품임에도 정비소를 이용하면 적어도 수만 원의 공임비가 붙기 때문에, 가장 많은 운전자가 ‘자가 교체’를 시도하는 부품이다. 오일 필터의 경우 폐유인 처리 등으로 비전문가가 바꾸기

쉽지 않지만, 정비소가 받는 필터 가격이 비싸 스스로 마련해서 정비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많다. 배터리 역시 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옥션에서 약 1년 사이 수입차 필터류와 배터리 판매량은 각각 67%, 80% 급증했다.

다루는데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구, 파워스텝, 오일 주입기, 크랭크축 고정 공구, 타이밍 벨트 등 정밀 부품류의 판매량도 적지 않다. 옥션 관계자는 “수입차 부품 구매 후기를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정비 기술과 지식을 갖춘 구매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비싼 부품과 공임 탓에 작년 한 해 벤츠·BMW·아우디 등 전체 수입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673억원)은 1조 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등은 수입차 업체 공임의 적정성 평가와 부품 가격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살 땐 ‘보고 또 보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실제 차와 달라...2년간 소비자 피해 651건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부실하고, 그 내용이 실제 차 상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등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연식·모델(등급) 상이’(39건·4.6%)와 ‘침수차량 미고지’(31건·3.7%),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48건·5.7%)도 있었다.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이유로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큰 비중이었고, ‘진동·소음’(65건)과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



의’가 된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이는 판매자가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데다 소비자도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경우 반드시 관련계약을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로부터 차량 소유관계나 가입료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	--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